

바이타 고트의 인기가 증명되다!

농장에서 바로 그 바이타 고트를 더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2006년 북한에 바이타 고트가 도입된 이래 전력 공급이 되지 않는 외곽지역에서 콩 우유를 생산하는 바이타 고트의 방식이 대성공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현재 다른 지역에서도 역시 바이타 고트를 원하고 있습니다.

수잔 리치 이사는 최근 북한에 있는 퍼스트 스텝스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11월 25일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이타 고트의 영향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원산에 있는 콩 우유 공장을 방문했을 때 책임자는, 지난 여름 수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두 곳의 대형 협동농장에 두 대의 바이타 고트를 설치, 가동할 수 있으면 고맙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봄 갈천리 농장에 설치한 바이타 고트에 대해 전해 들었고, 농장에서 지내고 있는 영양결핍 어린이들에게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영양 공급이 향상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수잔은 또 갈천리에 설치된 바이타 고트는 매일 500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한 컵의 우유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종사자들이 판매할 수 있는 두부와 같은 부산물도 제공해 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이타 고트를 좋아합니다. 전력공급문제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들에게는 바이타 고트의 보일러를 가동시킬 마른 옥수수 속대가 풍부하답니다. 단지 한 가지, 그들이 외곽지역에 우유통들을 빨리 운반할 수 있도록 소형 오토바이 한 대가 있으면 도움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산 근교에 있는 두 농장에 바이타 고트를 설치하면 매일 1,500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수잔은 전합니다.

바이타 고트는 캐나다의 오타와에 근거지를 둔 “Malnutrition Matters” 에 의해 개발되어 수상 실적도 있는 기술입니다. 바이타 고트는 전력으로 작동하는 바이타 카우의 사촌격입니다. 퍼스트 스텝스는 현재 세 곳의 도심지역 (원산, 남포, 그리고 형제산) 35,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매일 한 컵의 콩 우유를 공급하는 바이타 카우 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앞두고...

이번 겨울은 북한에게 특별히 2백만 명 이상의 영양결핍 어린이들에게 혹독한 계절이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매일 견뎌온 그 고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의 결합으로 인해 삶이 더 어려워 질 것입니다.

지난해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과 같은 모든 주요 기구들이 북한의 요구에 의해 북한을 떠난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 원조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재에 최근 북한 핵 실험에 대한 유엔의 경제 제재가 더해졌습니다. 게다가 지난 여름 홍수로 인해 입은 심각한 농작물피해가 북한의 식량 저장고를 거의 비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이해해야 하며, 현재 북한 사람들은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고도 추운 겨울내 극심한 식량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퍼스트 스텝스 공장들 조차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수해로 콩 수확에 피해를 입어, 올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바이타 카우와 바이타 고트 공장의 콩 공급량이 바닥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퍼스트 스텝스는 중국에서 최소한 한 컨테이너 분량(60톤)의 콩을 구매하려고 현재 신속히 움직이고 있으며, 그것을 철도로 수송하여 이번 겨울 동안 확실히 콩 우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퍼스트 스텝스는 여기에 비상경비 미화 24,000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은 희망을 부르는 스프링클스

북한의 영양결핍 임산부들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영양상태를 향상 시키고 건강한 아기를 출산 할 수 있도록 돕는 스프링클스를 곧 밥에 뿌려 먹게 될 것입니다.

퍼스트 스텝스는 최근 토론토에 있는 Hospital for Sick Children의 스탠리 즐로트킨(Stanley Zlotkin)박사가 개발하여 격찬 받고 있는 미량영양소 스프링클스 150만 봉지가 북한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잔 리치 이사와 안드레아 로즈 이사는 2007년 4월부터 시작될 스프링클스 연구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23일 북한 어린이 영양연구소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시작이 생각보다 늦어졌지만, 저희 퍼스트 스텝스는 이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한층 고무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스프링클스가 영양 수준, 특히 영양결핍이 시작되는 태아의 영양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스프링클스 연구는 영양보충제인 스프링클스를 복용하기 전과 복용한 이후에 여성과 어린이들의 헤모글로빈 수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북한 어린이영양연구소는 저희 퍼스트 스텝스에게 연구 수행에 필요한 큐벳, 외과용 칼인 랜릿과 광도계(光度計)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퍼스트 스텝스는 북한의 영양결핍과의 전투를 펼쳐감에 있어서 콩 우유 프로그램과 함께 스프링클스가 핵심 구성요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일년 동안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정성에 힘입어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콩 우유 급식 사업이 더 널리 시행되어 보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후원자들의 기도와 성원은 영양실조로 신음하는 북한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